

이재명 “유신 물러난 자리에 검사독재 딱리…민주주의 질식”

‘尹정권 규탄대회’서 밝혀…“檢영장, 국민 위협” “정치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민주주의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유신독재 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딱리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문 인근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에서 “유신 사무관 대신 검찰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찰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다”며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야당 대표인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속되자 이를 독재로 규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늘 우리는 국가를 왜 존재하는가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국민이다. 국민이 곧 국가다. 국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와 민생 등이 모두 후퇴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9개월인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다. 전진은커녕 그 짧은 시간에 상상도 못 할 퇴행과 퇴보가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안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 안보나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과 안보를 더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 무대책 때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

이다. 수많은 사람 죽어가고 대량 파괴가 이뤄진 다음에 이기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책”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난방비 폭탄 등 공공요금 인상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며 “재정이 부족하데 부자들 세금은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깎아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라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윤석열 정권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만간 예정된 검찰 출석을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 대표는 “패자인데, 전쟁에 졌는데 삼척동자도 모르는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로 삼겠다”며 “국민의 피눈물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



움에 무슨 대수겠나. 역사적 소명을 빼고 새기겠다. 어떠한 핍박도 의연하게 맞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한다”며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재명을 부셔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는 말라. 나라의 미

래를 망치지지는 말라”고 했다.

이어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이슬기자

‘단일대오론’에도…민주, 사법리스크 ‘이재명 체제’ 불만 커지나

최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방탄’ 우려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국민보고대회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사법리스크 누적 피로감이 서서히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상민 탄핵’, ‘장외

투쟁’에 대한 당론 채택 결정이 미뤄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지도부가 이 장관의 탄핵과 국민보고대회 개최를 강하게 추진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역풍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표출됐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민주당의 강경 행보가 ‘이재명 방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 수도권 3선 의원은 “절차 문제나 싸움의 방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설

명했다.

몇몇 의원은 국민보고대회가 진행된 것을 두고서는 최근 감지되는 극단적인 ‘팬덤정치’ 현상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당일 자유발언을 신청한 17명의 의원들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언을 한 비명계 의원은 “물론 다들 정부나 여당을 혼내야 한다는 입장이 비슷하지만 ‘세계 물이치는 것이 좋은 거냐, 다 이재명 방탄으로 비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맞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불만이 조금씩 분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기류에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보고대회를 분기점으로 삼아 민생 문제 등 원내 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난방비, 가스요금 이 최악인데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왔다.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검찰 독재에 대한 투쟁도 같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니기자

민주 “尹정부 무책임 국정엔 국민 생존 걱정”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 등 각종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없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5일 오전 논평을 통해 “월급만 빼고 다 치솟아 오르는 윤석열 정부는 책임에서 도망갈 궁리만 하니”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달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사이 30% 넘게 상승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식료품 물가 상승률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고에 국민은 숨이 막힐 지경인데 윤석열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 난방비 지원이 불가피한데도 추경 도입에는 몹서리를 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초부자 감세, 초거대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에 서민들을 위한 민생 지원을 줄여놓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제 LNG 가격 인상을 보고도 난방비 폭탄을 예상 못하고 가스

요금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와서 추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것보다 실패를 인정하기 더 쉬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답 없는 길로만 가려는 윤석열 정부”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철 지난 남탓만 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국민은 속이 터진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무역적자, 고금리까지 문제가 겹쳐산중인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해소할 능력도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뺄질 처방이나 하며 거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다. 하지만 그렇게 난방비는 넘긴다고 해도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무역적자, 고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이 알아서 버텨야 하니”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서둘러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